

감사수익성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준선(주저자)

서강대학교
(jyang@sogang.ac.kr)

임영제(교신저자)

서강대학교
(yjeim@sogang.ac.kr)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는 특정한 상황 중 감사수익성을 중심으로 감사수익성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는 이슈와 논란이 되는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혼재되어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닌, 특정환경하에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감사수익성의 차이를 조건으로 하는 특정한 상황하의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감사품질은 성과통제 재량적발생액과 수정Jones모형의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하였고 감사수익성은 시간당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율의 중위수 이하를 1로 하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은 양(+)의 관계가 있어 비감사서비스는 감사품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과의 양(+)의 관계가 완화되었는데 이는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유대관계의 효과라고 해석되는 이익조정이 감소하여 감사품질의 훼손이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감사품질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 감사인의 위협대응차원에서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감사품질의 저하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감사수익성을 고려한 감사인의 위협관리행태에 따라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비감사서비스가 항상 감사품을 저하시킨다는 단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도적 상황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유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선행연구들을 발전시켰다는 공헌점을 갖는다.

주제어: 비감사서비스, 감사품질, 비정상감사보수, 시간당 보수

1. 서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을 계기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¹⁾ 2001년 미국의 Enron사 회계부정 이후 2002년 SOX 법안을 통해 미국은 감사인의 비감사서비

스 제공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상당부분 금지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회계학 실증연구들은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유대(economic bond) 강화로 인한 독립성 훼손 효과와 지식전이(knowledge spillover)를 통한 감사품질의 향상효

최초투고일: 2018. 4. 20 수정일: (1차: 2019. 1. 9) 게재확정일: 2019. 3. 18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5463)

1) "금감원, 수조원대 '빅패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여부 감리 받는다" <파이낸스 뉴스 2015.12.30>

과 등이 혼재되어 일관된 결론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할 때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시장과 감독기관이 감사인에게 요구하는 책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계열 컨설팅법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자 하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다.²⁾ 이처럼 비감사서비스가 실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비감사서비스를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보고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일관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은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기회를 상실시킬 수 있다. 비감사서비스 자체가 상반되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연구 환경에서 비감사서비스의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종학(2008)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존 연구와 달리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결론이 보다 명확해지거나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

최근 들어 특정환경(certain circumstances)하에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수

는 적은 편이다(Larcker and Richardson, 2004; Causholli et al., 2014; 손성규 등, 2010; 황인태 등, 2015).⁴⁾ 이 연구들은 비감사서비스가 항상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특정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을 확장하여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비감사서비스 제공 자체가 감사품질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이 놓여 있는지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사수익성의 고저라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수익성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비감사서비스 제공의 효과 중 하나는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경제적 유대관계(economic bond)형성이다. 비감사서비스가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은 비감사서비스 계약수입시 발생하는 효익(추가보수)과 명성손상, 소송위험 등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하게 된다(DeFond et al., 2002). 특히 감사품질이 이미 낮은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독립성 저하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차별적 대응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감사인은 높은 감사위험에 대해

2) '정무위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와 컨설팅 업무를 둘 다 진행했다"며 "회계를 감시해야 하는 기관이 컨설팅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회계법인의 회계감리와 컨설팅 겸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2015.9.15. "진웅섭"회계법인, 감리와 컨설팅 겸업 금지 검토>

3) 최종학(2008)은 그밖에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들을 감사품질 측정의 문제, 표본선정의 문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4) Larcker and Richardson(2004)는 기업지배구조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Causholli et al.(2014)는 현재 상대적으로 비감사서비스 비중이 낮은 동시에 차년도의 비감사서비스보수가 증가하는 기업들에게서 이익조정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손성규 등(2010)은 계속감사시간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황인태 등(2015)은 피감사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감사시간을 늘리고 증가된 감사보수를 받지만 시간당보수는 감소한다고 확인하면서 감사인은 감사위험에 대해 수익성을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하고 있다(Schelleman and Knechel, 2010; 권수영·기은선, 2011; 배길수 등, 2015). 감사보수가 정상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간당감사보수가 낮은 경우 감사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어 있다(Eshleman and Guo, 2014; 박종일·최관, 2009; 이재은·김경혜,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수익성의 정도에 따라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감사수익성은 시간당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율 두 가지로 측정하였고 감사품질은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과 수정Jones모형의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는 감사수익성이 통제된 이후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간에는 양(+)의 관계를 보여 감사품질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관계를 경제적 유대관계의 강화로 인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이후 감사수익성과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는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음(-)의 관계는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감사수익성과 비감사서비스규모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하여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이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감사서비스 자체는 경제적 유대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본연의 감사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유대관계가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 제공의 효과 중 하나인 경제적 유대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하여 감사인 명성과 소송위험 등을 고려한 감사인

의 위험관리행태를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비감사서비스가 항상 감사품을 저하시킨다는 단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도적 상황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유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Francis, 2006; 최종학, 2008)을 발전시켰다는 공헌점을 갖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방법을 설명한 후 4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보고하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2.1 선행연구

2.1.1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을 훼손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와 국외의 초기 연구들 중 Frankel et al.(2002), 정대길 등(2009), 김명인 등(2009)은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감사품을 저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권수영 등(2004)과 박종일 등(2003)은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일부 분석에서는 음(-)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혼재들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특정환경(certain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비 감사서비스의 감사품질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기업의 경우 비감사 서비스가 감사품질 저해시킨다는 연구 결과나(Lacker and Richardson, 2004) 계속감사기간의 기간에 따라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회계오류와의 관계에 차별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손성규 등, 2010)가 제시되었다. 황인태 등(2015)은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들에게서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비 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 관계를 특정한 환경하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감사서비스가 이러한 특정환경과 결합하여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2.1.2 감사수익성과 감사품질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경영자와 주주의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감사품질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DeFond et al., 2014).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되면 감사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감사보수가 크면 감사인의 투입원가인 감사인력을 더 많이 그리고 충분한 시간동안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감사품질에 관한 중요한 요인이다(DeFond et al., 2014; Knechel et al., 2013). 반면, 감사보수는 감사인의 주 수입원으로 피감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감사인과 고객간의 경제적 유대(economic bonding) 형성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제적 유대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수익성과 감사인과 고객간의 경제적 유대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가 특정상황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감사수익성은 주로 시간당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로 측정되어 왔다. 시간당감사보수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국외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감사시간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자료를 이용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Bell et al.(2001)은 1989년도 감사인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감사위험이 높으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하지만 시간당감사보수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시간당감사보수의 변수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명곤 등(2012)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감사투입시간의 증가에 비해 감사보수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 시간당감사보수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재은·김경혜(2017)는 시간당감사보수 평균이 낮은 그룹회사들이 재량적발생액이 더 높으며 감사수익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낮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감사품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감사수익성의 두 번째 측정치인 비정상적인 감사보수(abnormal audit fee)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과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Choi et al.(2010)은 양(+)의 비정상감사보수는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Kinney and Libby(2002)와 같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제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Eshleman and Guo(2014)는 재량적발생액의 정도(절대값)가 아닌 이익의 상향조정을 통해 재무분석가의 예측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비정상감사보수와 재량적발생액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 이익조정가능성은 비정상감사보수가 높은 수준일 때 더 낮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높은 수준의 비

정상보수는 감사인이 투입하는 노력수준을 증가시켜 감사품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감사보수수준과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정상감사보수와 구분하여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비정상감사보수를 이용해 검증하면서 초기에는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으나(Srinidhi and Gul, 2007; Hope and Langli, 2010) 특정환경을 고려하여 연구설계를 정교하게 발전시킴에 따라 특정환경 하의 유의한 감사보수와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비정상감사보수와 관련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낮은 비정상감사보수가 감사품질을 훼손한다는 결과를 보고한다(박종일·최관, 2009; 박종일·박정호, 2013; 최관 등, 2015). 특히 낮은 감사보수인 경우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정상수준보다 낮은 감사보수가 지급될 때 재량적발생액이 높게 나타나며, 정상수준보다 높게 지급될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박종일·최관, 2009)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상수준보다 낮은 감사보수는 재량적발생액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높은 감사보수의 경우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며 낮은 감사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최관 등, 2015).

2.2 연구의 배경 및 연구가설의 설정

선행연구들은 비감사서비스는 지식전이현상과 경제적 유대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상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Knechel et al., 2013; DeFond et al., 2014; 손성규 등, 2010). 이러한 두 가지 효

과는 각각 논리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그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감사법인의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실무적으로도 회계법인 구조와 시스템을 고려하면 효과의 혼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지식전이효과(knowledge spillover)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이유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회계법인들은 감사·세무·컨설팅 등 제공 서비스별로 인력을 별도 운용하고 그 조직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감사서비스업무 참여인력이 감사업무에도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인력이 직접 해당 비감사서비스 업무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회계법인내 부서간 정보교류를 통해 지식전이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기업정보에 대하여 보안유지가 강화되고 있고 내부부서간에 불필요한 정보교류도 제한(chinese wall)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이영한·윤성만, 2011)⁵⁾ 지식전이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유대(economic bond)강화 측면 또한 일정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개별 감사파트너가 계약단계에서 최종감사업무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비감사서비스 제공의 경제적 유대형성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개별 감사파트너가 직접 감사팀을 관리하면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한 감사보수에 따른 성과평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면 다른 파트너에 의한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제적 유대관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⁶⁾ 최승욱 등(2015)은 감사파트너 고정효과

5) 이영한·윤성만(2011)은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부서간 chinese-wall 높기 때문에 지식전이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 신용인 등(2007)에 따르면 선진화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Big4 회계법인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감사담당자별 시간당 임금을 이용하여 고객별 예산을 설정하고 개별감사업무의 수익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실제투입원가가 실제보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손(write-off)금액에 대하여는 담당 파트너 및 감사팀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를 분석하여 감사파트너 사이에서 체계적인 감사보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동일법인 내에서도 감사파트너별로 감사보수, 감사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을 실증적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⁷⁾

이처럼 비감사서비스의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충되는 면을 가지며 각각의 효과는 실무적으로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을 특정상황의 조건에 따라 정교하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의미 있는 결과도 출이 가능할 것이다. 즉 비감사서비스의 두 효과는 명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모형 안에서 강건성을 확보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감사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점은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경제적 유대관계(economic bond) 형성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인인 아더앤더슨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아더앤더슨은 엔론사의 외부감사인이지만 비감사서비스가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부실감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의 이유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계열 컨설팅사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Big4 회계법인이 비감사서비스 수임을 위해 산업은행의 외부감사인 선정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로컬회계법인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서비스가 아닌 비감사서비스가 회계법인의 중요한 수익처가 되기 때

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⁸⁾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전 이효과보다는 경제적 유대관계의 논점에서 경제적 유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가 비감사수익 외의 또 하나의 수익원인 감사수익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비감사서비스 계약은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감사서비스라는 수익을 확보하게 되는 감사인 입장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감사수익성이 낮을 때도 감사품질이 저하된다고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나 비감사서비스가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감사수익성의 확보에 따라 감사품질과의 관계가 차이가 난다면 이는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감사수익성, 비감사서비스 및 감사품질과의 관계는 그 예상에 양방향의 예상이 모두 가능하다.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인식한다면 감사보수가 낮아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비감사서비스를 통한 추가 수익확보를 통하여 경제적 유착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해외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사보수가 낮은 수준인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수익성이 더욱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할 수 있다.⁹⁾ 만약 그렇다면 감사서비스 수익성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는 경제적 유대관계 형성으로 인해 감사품

7) 최승욱 등(2015)은 상장사 감사파트너가 구분된 코드자료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감사파트너 고정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8) "빅4 회계법인, 산업은행 외부감사인 거절" <머니투데이 2016.2.17>

9) '2012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총자산과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회계감사 보수는 애플이 82억원인 데 비해 삼성전자는 37억원이다. 자산총액 121조원의 현대자동차 감사보수는 15억원인데, 자산총액 164조원인 제너럴모터스(GM)의 감사보수는 462억원에 달한다.' <한국경제 2015.6.21 '은행 송금 수수료, 미국의 2% 불과...M&A 자료료 0.1%까지 떨어져'>

질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낮은 감사수익성은 감사품질에 훼손을 일으키는 비감사서비스의 경제적 유착효과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낮은 감사수익성은 감사업무의 경제적 유대관계의 형성을 낮추고 이는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로 감사품질이 감소될 수 있다(Eshleman and Guo, 2014; 박종일·최관, 2009). 치열한 감사수입경쟁 속에서 전반적으로 감사보수 수준이 낮은 국내 감사시장을 고려해 볼 때(김정원·고영우, 2017)¹⁰⁾ 정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사보수수준이나 낮은 감사수익성은 쉽게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감사품질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김지홍 등(2012)은 정상감사보수가 감소할 때 실제감사보수는 민감하게 즉각 감소하는 반면 정상감사보수가 증가할 때 덜 증가한다고 밝히면서 감사보수의 상방경직성을 보고하고 있어 낮은 수준의 감사보수는 정상수준에서 크게 하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발생하는 감사품질의 훼손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비감사서비스는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감사수익성(시간당보수)이 확보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감사위험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의 투입시간을 더 늘리고 전문적인 감사인력을 추가 배정하는 감사인의 위험관리행태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Schelleman and Knechel, 2010; 배길수 등, 2015; 권수영·기은선, 2011)¹¹⁾에 비추어 볼 때 감사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감사품질은 이미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이재은·김경혜, 2017)¹²⁾ 추가적인 비감사서비스를 수입하더라도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용인해 줄 경제적 유대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비감사서비스의 경제적 유대효과는 감사서비스의 경제적 유대효과에 기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양방향의 예상이 가능하지만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음(-)의 관계를 야기하는 경제적 유대관계가 낮은 감사수익성 하에서는 완화되는 것이 더 적절한 예상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음(-)의 관계는 완화된다.

III. 연구설계

3.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상

10) 김정원·고영우(2017)는 2002년~2012년 까지 한국과 미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감사보수 수준이 미국에 비해 자산 1원당 약 29% 정도이고 매출액 1원당 약 27%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1) 이와 달리 최승욱·배길수(2016)는 감리지적은 감사인 영업위험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인은 감사시간을 증가시키고, 추가 위험프리미엄의 대가로 시간당감사보수도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감사수입경쟁이 치열한 시장상황에서 감리지적과 같이 객관적 증거가 발생하는 상황 외에는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이재은·김경혜(2017)는 평균시간당감사보수 수준이 낮은 그룹회사들의 감사품질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감독당국의 집중감독과 감사인차원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업

- ② 결산일이 12월 말이면서 비금융업인 기업
- ③ Kis-value III와 TS2000(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제공되는 기업
- ④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기업

12월 결산기업만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표본기업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금융업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방법 및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의 구성 등이 다른 업종의 기업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Kis-value III와 TS2000(한국상장사협의회)을 통해 이용가능한 재무자료와 감사시간 및 보수자료는 2,399개였으며 이중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으로서 실증분석에 이용할 최종표본은 총 750개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감사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으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750개의 최종표본을 연도별로 구별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130개 기업부터 175개 기업까지 분포되어 있다.

<Table 1> Sample distribution by year

Year	Frequency	Percent
2011	130	17.33
2012	135	18
2013	147	19.6
2014	175	23.33
2015	163	21.73
Total	750	100.00

3.2 연구모형

3.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가 낮은 감사수익성 하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식(1)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PDA(or DA) = & \beta_0 + \beta_1NAS_{it} \\
 & + \beta_2Dfee(or Dabno) + \beta_3NAS*Dfee(or Dabno) \\
 & + \beta_4FIRST + \beta_5SIZE + \beta_6LEV + \beta_7OCF \\
 & + \beta_8BIG4 + \beta_9GRW + \beta_{10}ISSUE \\
 & + \beta_{11}Lag_TA + YD + ID + e \quad (1)
 \end{aligned}$$

- PDA : Kothari et al.(2005)의 성과통제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 재량적발생액;
- DA : 수정Jones모형을 이용한 재량적발생액;
- NAS : 총보수(감사보수+비감사보수)중 비감사보수 비중;
- Dfee : 시간당 감사보수가 중위수 미만이면 1, 아니면 0;
- Dabno : 비정상감사보수율[(실제감사보수-정상감사보수)/실제감사보수]이 중위수 미만이면 1, 아니면 0;
- FIRST : 초도감사인 경우는 1, 아니면 0;
- SIZE : 총자산의 로그값;
-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OCF :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
- BIG4 :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 GRW : 매출액성장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ISSUE : 증자여부(전년대비 자본금 변동 10% 이상 시 1, 아니면 0);
- Lag_TA : 전년도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총자산);
- ID : 산업별더미변수;
- YD : 연도별더미변수;
- e : 잔차.

식(1)에서 종속변수는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 변수이다. 재량적발생액이 크면 감사품질이 낮고 재량적발생액이 작으면 감사품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발생액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Jones모형(DA)과 Kothari et al.(2005)의 성과통제모형(PD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비감사서비스(NAS)는 총보수 중 비감사보수의 비중으로 비감사보수를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의 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감사수익성은 시간당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율의 중위수기준으로 상하로 나눈 더미변수이며 본 더미변수는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이 된다. 이는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가 경제적 유대효과 발생으로 감사품질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감사수익성이 낮을 경우 감사품질에 음(-)의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두 변수의 방향을 일치시켜 상호작용변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간의 양(+)의 관계에 추가적인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에 일치할 경우 관심변수인 β_3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식(1)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여러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SIZE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감사서비스가 증가하고 실증분석시 기업규모변수는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s)의 대용치가 될 수 있고(Becker et al., 1998), LEV는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있다고 보아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Frankel et al., 2002). OCF는 현

금흐름이 재량적발생액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DeFond and Subramanyam, 1998)에 따라 추가하였으며, 대형회계법인여부 및 기업의 성장성을 통제하기 위해 BIG4 및 GRW를 포함하였다. 유상증자시 기업의 성과를 좋게 보이려는 이익조정 유인이 있으므로 ISSUE 변수를 고려하였고 전기발생액(Lag_TA)은 반전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Ashbaugh et al., 2003; 최관 등, 2015).

3.2.2 감사수익성의 측정

감사수익성은 시간당감사보수와 당기비정상감사보수율로 측정한다. 감사보수를 감사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시간당감사보수는 proxy가 아닌 실제 값의 비율변수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용이하며 변수의 해석이 쉬운 장점이 있다.¹³⁾

본 연구는 감사수익성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정상감사보수로도 감사수익성을 측정한다. 비정상감사보수율은 선행연구(Choi et al., 2010; 최관 등, 2015)의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실제보수에서 추정보수를 차감하여 실제보수로 나누어 비정상보수율을 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비정상감사보수 추정은 다음 모형 식(2)를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식(2)의 잔차값으로 측정하였다.

$$\begin{aligned}
 LNAF = & \beta_0 + \beta_1SIZE + \beta_2BIG4 \\
 & + \beta_3FIRST + \beta_4CONF + \beta_5INVREC \\
 & + \beta_6ISSUE + \beta_7BOND + \beta_8LIQ \\
 & + \beta_9LEV + \beta_{10}ROA + \beta_{11}LOSS \\
 & + \beta_{12}GRW + \beta_{13}OPN + \beta_{14}AGE \\
 & + \beta_{15}NEGE + IND + YD + e \quad (2)
 \end{aligned}$$

13) 시간당감사보수는 자료사용의 한계로 인해 감사인 직급별 임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계점은 가지고 있다.

LNAF	: 감사보수의 로그값;
SIZE	: 기초총자산;
BIG4	: Big 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FIRST	: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CONF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INVREC	: 채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채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ISSUE	: 자본금이 전기보다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BOND	: 사채발행이 있으면 1, 아니면 0;
LIQ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SS	: 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GRW	: 매출액의 성장률[(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OPN	: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AGE	: 기업설립연수;
NEGE	: 자본잠식기업이면 1, 아니면 0;
ID	: 산업별 더미변수;
YD	: 연도별 더미변수;
e	: 잔차.

IV.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

〈Table 2〉는 연구모형의 변수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발생액은 성과통제 재량적발생액(PDA)와 수정Jones모형의 재량적 발생액(DA)의 두 가지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다. 성과통제 재량적발생액(PDA)의 경우는 평균 0.001, 중위수는 0.002로 모두 양(+)¹⁾의 값을 보

인 반면 수정Jones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의 평균은 -0.003, 중위수는 -0.002로 모두 음(-)의 값을 보였다. 비감사서비스 변수인 NAS는 평균 0.217, 중위수 0.125로 해당 표본의 경우 개별 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총수익(감사보수+비감사보수) 중 평균 21.7%가 비감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초도감사의 경우 평균 9.7%의 기업-연도 표본이 초도감사표본으로 나타났다. 반면 80.7%의 기업이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상관관계

다음의 〈Table 3〉은 주요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PDA와 DA간에는 1% 양(+)²⁾의 유의한 관계이며 0.706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NAS와는 두 재량적발생액간의 단순 상관관계에 차이를 보였는데 DA의 경우 양(+)³⁾의 유의한 관계가, PDA와는 음(-)⁴⁾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당 감사보수가 낮은 경우를 나타내는 Dfee는 DA와는 양(+)⁵⁾의 유의한 관계가, PDA와는 유의하지 않은 양(+)⁶⁾의 관계가 나타나 시간당감사보수가 낮은 경우의 재량적발생액이 더 큰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비정상감사보수가 낮은 경우를 나타내는 Dabno의 경우 PDA와 DA와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연구하는 시간당 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로 측정하는 두 가지 감사수익성의 상황이 독립적인 상황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Mean	Standard Deviation	Min	1st quarter	Med	3 rd quarter	Max
PDA	750	0.001	0.051	-0.233	-0.027	0.002	0.029	0.315
DA	750	-0.003	0.072	-0.139	-0.036	-0.002	0.027	0.163
NAS	750	0.217	0.193	0.009	0.079	0.125	0.322	0.794
Dfee	750	0.472	0.499	0	0	0	1	1
Dabno	750	0.500	0.500	0	0	0	1	1
FIRST	750	0.097	0.297	0	0	0	0	1
SIZE	750	27.398	1.715	23.923	26.174	27.135	28.508	31.687
LEV	750	0.450	0.206	0.031	0.293	0.448	0.602	0.937
OCF	750	0.047	0.076	-0.217	0.008	0.047	0.088	0.298
BIG4	750	0.807	0.395	0	1	1	1	1
GRW	750	0.030	0.246	-0.729	-0.069	0.026	0.105	1.646
ISSUE	750	0.100	0.300	0	0	0	0	1
Lag_TA	750	-0.020	0.076	-0.364	-0.049	-0.018	0.015	0.231

주1) Variables are based as follows:

- PDA : Discretionary accruals using a cross-sectional performance-controlled modified Jones model(Kothari et al. 2005);
- DA : Discretionary accruals using modified Jones model(1995);
- NAS : The ratio of non audit fees to total fees(audit fee + non audit fee);¹⁴⁾
- Dfee : 1 if audit fee per hour is below median, 0 otherwise;
- Dabno : 1 if abnormal audit fee is below median, 0 otherwise;
- FIRST : 1 if it is the first year of auditor-client relationship;
- SIZE : The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 LEV : Total liabilities divided by total assets;
- OCF : Operating cash flows scaled by lagged total assets;
- BIG4 : 1 if audit firm is one of the Big audit firms, 0 otherwise;
- GRW : Percent change in Sales;
- ISSUE : 1 if capital stock is more than 10% of lagged year capital stock, 0 otherwise;
- Lag_TA : one-year lagged total accruals deflated by total assets.

4.3 단일변량분석

본 연구에서는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력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수익성에도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강건성과 다양성을 위해 시간당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감사수익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수익성의 상황을 더미변수로 구분하기 때문에 감사수익성의 중위수 기준 단일변량

14)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NAS의 연도별 평균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0.244, 0.228, 0.201, 0.224 및 0.195의 값을 나타내어 20% 안팎의 비중을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s

	DA	NAS	Dfee	Dabno	First	SIZE
PDA	0.706*** 〈.0001	-0.006 0.872	0.047 0.191	-0.002 0.965	-0.018 0.629	-0.067* 0.068
DA		0.066* 0.072	0.059* 0.010	0.004 0.912	-0.01 0.838	-0.01 0.788
NAS			-0.086** 0.019	-0.138*** 0.000	-0.053 0.143	0.179*** 〈.0001
Dfee				0.363*** 〈.0001	0.122*** 0.000	-0.091* 0.000
Dabno					0.078** 0.033	-0.176*** 〈.0001
FIRST						-0.102*** 0.005
	Lev	OCF	Big4	GRW	Issue	Lag_TA
PDA	0.009 0.806	-0.702*** 〈.0001	-0.025 0.497	0.044 0.227	-0.004 0.914	-0.020 0.561
DA	-0.124*** 0.001	-0.383*** 〈.0001	0.032 0.388	0.076** 0.038	-0.076** 0.036	-0.010 0.839
NAS	-0.024 0.519	0.043 0.243	0.158*** 〈.0001	0.028 0.440	0.021 0.557	0.053 0.147
Dfee	-0.011 0.755	-0.029 0.427	0.016 0.652	-0.045 0.220	-0.030 0.408	0.004 0.923
Dabno	-0.042 0.247	0.005 0.894	-0.032 0.379	0.053 0.144	-0.029 0.422	0.040 0.278
FIRST	0.074** 0.043	0.001 0.972	-0.090** 0.014	-0.021 0.562	0.115*** 0.002	-0.128*** 0.001
SIZE	0.200*** 〈.0001	0.219*** 〈.0001	0.490*** 〈.0001	-0.063* 0.084	-0.097*** 0.008	0.009 0.814
LEV		-0.15*** 〈.0001	0.127*** 0.001	-0.04 0.227	0.067* 0.066	-0.134*** 0.000
OCF			0.167*** 〈.0001	0.08* 0.029	-0.17*** 〈.0001	0.042 0.254
BIG4				-0.03 0.401	-0.13*** 0	-0.011 0.764
GRW					-0.01 0.88	0.047 0.194
Issue						-0.099*** 0.007

1) Table 1 provides definitions of all the variables.

2) ***, **, and * denotes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변수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여 <Table 3>으로 보고하였다.

<Panel A>의 시간당보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재량적발생액은 시간당감사보수가 중위수 이하인 경우 (Dfee=1) 양(+), 중위수 이상인 경우(Dfee=0) 음(-)으로 그 유의성은 수정Jones모형으로 측정된 재량적발생액(DA)에서만 발견되었다. 반면 성과통제 재량적발생액(PDA)은 유의하지 않은 양(+의) 차이가 있었다. NAS는 시간당감사보수가 중위수 이상인 경우(Dfee=0)의 평균값이 더 컸다. 또한 비정상감사보수율도 시간당감사보수가 중위수 이하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정상감사보수가 낮은 경우 시간당 보수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Panel B>의 비정상감사보수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재량적발생액(PDA, DA)은 중위수 이하인 경우(Dabno=1) 더 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

지 않았다. 반면 NAS의 경우 중위수 이하(Dabno=1)인 표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며 시간당 보수 금액의 경우도 비정상감사보수가 중위수 이하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¹⁵⁾ 감사수익성에 따라 비감사서비스구매와 감사품질의 대응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한계적인(marginal) 유의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하 회귀 분석을 통해 일정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살펴본다.

4.4 감사수익성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감사수익성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1과 모형2는 시간당감사보수로 감사수익성을 측정하였고, 모형3과 모형4는 비정상감사보수

<Table 4> Univariate mean difference

<Panel A :Low and high audit fee per hour samples>

Variables	Dfee=1 (n=354)	Dfee=0 (n=396)	Difference	T-value
PDA	0.004	-0.001	0.005	1.32
DA	0.001	-0.007	0.008	1.66*
NAS	0.199	0.233	-0.033	-2.37**
ABnor	-0.012	0.015	-0.003	-12.54***

<Panel B : Low and high abnormal audit fee samples>

Variables	Dabno=1 (n=375)	Dabno=0 (n=375)	Difference	T-value
PDA	-0.003	-0.004	0.001	0.07
DA	0.001	0.001	0.000	0.11
NAS	0.194	0.241	-0.047	-3.36***
Feeunit	66.968	85.861	-18.893	-12.06***

1) Table 2 provides definitions of all other variables.

ABnor : abnormal audit fee [(actual audit fee-normal audit fee)/actual audit fee];

Feeunit : audit fee per hour.

15) 더미변수의 경우 낮은 경우가 1이기 때문에 양(+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당보수가 낮은 경우가 많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Table 5) The effect of audit engagement profit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AQ_t = \alpha_0 + \beta_1 NAS + \beta_2 Dfee(\text{or Dabno}) + \beta_3 NAS * Dfee(\text{or NAS} * Dabno) + \beta_4 First + \beta_5 SIZE + \beta_6 LEV + \beta_7 OCF + \beta_8 BIG4 + \beta_9 GRW + \beta_{10} ISSUE + \beta_{11} Lag_TA + YD + ID + e$$

	audit fee per hour				abnormal audit fee			
	Model 1 (PDA)		Model 2(DA)		Model 3(PDA)		Model 4(DA)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Intercept	-0.035	-1.42	-0.123***	-2.74	-0.041	-1.67	-0.120***	-2.64
NAS	0.020**	2.31	0.031*	1.91	0.014	1.53	0.043***	2.64
Dfee	0.009**	2.42	0.013*	1.78				
Dabno					0.006	1.46	0.014*	1.89
NAS*Dfee	-0.027**	-2.00	-0.022	-0.88				
NAS*Dabno					-0.022*	-1.68	-0.052**	-2.09
First	0.006	1.37	0.013	1.58	0.006	1.29	0.012	1.52
SIZE	0.002**	2.18	0.005***	2.94	0.002***	2.67	0.005***	2.83
LEV	-0.029***	-3.96	-0.073***	-5.33	-0.030***	-4.05	-0.073***	-5.3
OCF	-0.563***	-30.3	-0.508***	-14.8	-0.569***	-30.58	-0.513***	-14.89
BIG4	0.012***	3.15	0.017**	2.37	0.011***	2.93	0.017**	2.49
GRW	0.026***	4.98	0.034***	3.5	0.026***	4.97	0.033***	3.45
ISSUE	-0.017***	-4.00	-0.028***	-3.46	-0.018***	-4.18	-0.028***	-3.47
Lag_TA	-0.008	-0.48	-0.021	-0.68	-0.003	-0.15	-0.019	-0.61
I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 value	28.75***		8.47***		29.43***		8.51***	
Adj. R ²	0.558		0.253		0.563		0.254	
N	750		750		750		750	

1) Table 2 provides definitions of all other variables.

2) ***, **, and * denotes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율로 감사수익성을 측정한 모형이다. 모형1과 모형3은 성과통계 재량적발생액(PDA), 모형2와 모형4는 수정Jones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으로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우선 비감사서비스(NAS)와 재량적발생액과의 관계(β_1)는 모형1, 모형2, 모형4에서 PDA과 DA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어 감사품

질과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감사수익성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계(β_2)는 모형1과 모형2는 시간당감사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 결과 시간당감사보수가 낮은 경우(Dfee=1) 재량적발생액과 양(+)의 관계가 나타나 감사품질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감사수익성이 낮으면 적정 감사시간을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되며 이는 시간당감사보수가 낮은 그룹회사들에게서 감사품질이 낮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한 이재은·김경혜(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모형3과 4는 낮은 비정상감사보수율로 감사수익성을 측정된 것으로 수정Jones모형으로 측정된 재량적발생액(DA)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고 PDA와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박종일·최관(2009)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감사품질이 손상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수익성의 상호작용변수이다. 감사수익성을 시간당감사보수로 측정된 모형1과 모형2의 분석 결과 NAS와 Dfee의 상호작용효과(β_3)는 PDA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이, DA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이 확인되어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고, 방향성은 음(-)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시간당감사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비감사서비스(NAS)와 재량적발생액간의 양(+)이 관계, 감사품질과의 음(-)의 관계가 완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정상감사보수율로 감사수익성을 측정된 모형3과 모형4의 NAS*Dabno의 계수(β_3)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가설이 지지되었고 이는 비정상감사보수율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NAS)와 재량적발생액간의 양(+)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비감사서비스는 감사품질을 낮게 하는 경제적 유착관계가 나타나지만 정상수준 이하의 감사보수로 감사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간

당감사보수가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유착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낮은 감사수익성으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지 못하여 낮은 수준의 감사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적정수준의 목표감사위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감사인의 감사위험관리행태를 고려하면(Schelleman and Knechel, 2010; 배길수 등, 2015; 권수영·기은선, 2011) 비감사서비스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유대는 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사수익성이 낮은 감사인은 비감사서비스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해 일정 부분 감사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4.5 추가분석

4.5.1 감사수익성 고저에 따른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

(Table 5)에서는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과의 양(+)의 관계에 낮은 감사수익성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수익표본과 저수익표본간에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강건성을 위해 감사수익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표본을 나누고 감사수익성을 연속변수(AP)로 하여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재분석하였다.

(Table 6)은 감사수익성의 중위수에 따라 표본을 분류한 후 감사수익성을 더미변수가 아닌 연속변수

16) 본 연구에서 고수익과 저수익 구분은 감사수익성의 중위수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서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사보수가 해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저수익 감사는 감사인의 목표감사위험의 한계치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Table 6>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by audit engagement profitability

$$AQ_t = \alpha_0 + \beta_1 NAS(\ln NAS) + \beta_2 AP + \beta_3 First + \beta_4 SIZE + \beta_5 LEV + \beta_6 OCF + \beta_7 BIG4 + \beta_8 GRW + \beta_9 ISSUE + \beta_{10} Lag_TA + YD + ID + e$$

Panel A : audit fee per hour	High profitability				Low profitability			
	Model 1(PDA)		Model 2(DA)		Model 3(PDA)		Model 4(DA)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NAS	0.016*	1.68	0.016	0.88	-0.001	-0.11	0.017	1.05
AP (Feeunit)	-0.000*	-1.95	-0.000*	-1.9	0.000	1.47	0.000	1.47
F value	16.2***		5.46***		17.63***		5.17***	
Adj. R ²	0.559		0.294		0.573		0.281	
N	396		396		354		354	
Panel B: abnormal audit fee	High profitability				Low profitability			
	Model 1(PDA)		Model 2(DA)		Model 3(PDA)		Model 4(DA)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NAS	0.014	1.58	0.043 **	2.52	-0.009	-0.9	-0.004	-0.22
AP (ABnor)	-0.199 *	-1.95	-0.639 ***	-3.37	0.016	0.19	0.055	0.33
F _값	17.36***		4.88***		17.52***		6.04***	
Adj. R ²	0.591		0.255		0.586		0.301	
N	375		375		375		375	
Panel C: audit fee per hour	High profitability				Low profitability			
	Model 1(PDA)		Model 2(DA)		Model 3(PDA)		Model 4(DA)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LnNAS	0.003*	1.89	-0.000	-0.04	-0.000	-0.26	0.002	0.79
AP (Feeunit)	-0.000	-1.12	-0.000*	-1.92	0.000	1.22	0.000	1.41
F value	17.61***		5.43***		15.08***		5.15***	
Adj. R ²	0.581		0.270		0.568		0.573	
N	396		396		354		354	
Panel D: abnormal audit fee	High profitability				Low profitability			
	Model 1(PDA)		Model 2(DA)		Model 3(PDA)		Model 4(DA)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LnNAS	0.003**	1.97	0.005*	1.89	0.000	0.97	-0.000	-0.16
AP (ABnor)	-0.224**	-2.08	-0.701***	-3.59	-0.000	0.99	0.059	0.35
F _값	18.08***		4.76***		15.55***		6.04***	
Adj. R ²	0.601		0.249		0.555		0.301	
N	375		375		375		375	

1) Table 2 provides definitions of all other variables except below.

AP : defined as follows:

Feeunit : audit fee per hour:

Abnor : abnormal audit fee [(actual audit fee-normal audit fee)/actual audit fee];

LnNAS : The natural logarithm of nonaudit fees.

2) ***, **, and * denotes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3) For comparison purposes, we show the results of main variables.

로 하여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가 표본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Panel A>는 시간당 감사보수, <Panel B>는 비정상감사보수로서 각 Panel의 모형1과 모형 2는 수익성이 높은 경우, 모형3과 모형4는 수익성이 낮은 경우의 표본분석 결과이다. 재량적발생액을 두 가지로 측정하였기에 두 가지 모형으로 결과가 제시되었다.

<Panel A>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수익 표본인 모형1(PDA)에서는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간에 양(+)의 유의한 관계가, 모형2(DA)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가 발견된다. 이는 시간당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표본에서 비감사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유대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시간당 감사보수가 낮은 표본에서는 비감사서비스는 재량적발생액과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시간당 감사보수가 낮은 집단에서는 감사품질이 낮아 비감사서비스의 수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유대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속변수인 감사수익성(AP)의 경우 고수익 표본에서는 성과통계 재량적발생액(PDA)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모형1 및 모형2), 저수익 표본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감사수익성이 낮은 집단의 감사품질이 낮아지고 감사수익성이 높을 때 높은 감사품질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상감사보수율로 구분한 <Panel B>의 결과는 <Panel A>와 유사하다. 비정상감사보수율이 높은 표본에서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비정상감사보수율과 재량적발생액간의 관계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낮은 표본(모형3과 모형4)에서는 두 변수 모두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비정상감사보수율이 높은 표본에서는 비감사서비스의 경제

적 유착현상이 발견되었고 수익성에 따른 감사품질은 증가하였다. 이에 <Table 6>의 <Panel A>와 <Panel B>의 결과로 <Table 5>에서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감사수익성의 영향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비감사서비스 측정치인 NAS를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의 합에서 비감사보수의 비중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인 측정치이기 때문에 비감사보수의 로그값을 이용하여 절대적인 비감사보수의 크기를 측정하여 재분석을 수행하였다. <Panel A>와 <Panel B>의 표본 구분처럼 시간당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의 고저 표본을 활용하여 <Panel C>와 <Panel D>로 재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Panel A>와 <Panel B>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일부 변수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감사수익성의 영향이 재확인되었다.

4.5.2 전기 시간당감사보수를 활용한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

본 연구의 감사수익성 측정 방법 중 시간당감사보수는 당기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종속변수인 당기 재량적발생액으로 대용되는 감사위험과 내생성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추가분석으로 전기의 시간당 감사보수를 사용하여 재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감사수익성 측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도감사 표본을 제외한 677개 기업-연도 표본을 사용하였다. <Table 7>의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 NAS와 Dfee의 상호작용효과(β_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초도감사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구분한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강건히 보

〈Table 7〉 The effect of audit engagement profit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except for Initial Audit Engagements

$$AQ_t = \alpha_0 + \beta_1 NAS + \beta_2 lag_Dfee + \beta_3 NAS * lag_Dfee + \beta_4 lag_Feeunit + \beta_5 SIZE + \beta_6 LEV + \beta_7 OCF + \beta_8 BIG4 + \beta_9 GRW + \beta_{10} ISSUE + \beta_{11} Lag_TA + YD + ID + e$$

Panel A : audit fee per hour	except for Initial Audit Engagements				High profitability		Low profitability	
	Model 1(PDA)		Model 2(DA)		Model 3(PDA)		Model 4(PDA)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NAS	0.024**	2.51	0.036**	2.16	0.022**	2.2	-0.008	-0.72
lag_Dfee	0.011***	2.81	0.016**	2.32				
NAS *lag_Dfee	-0.035**	-2.53	-0.023	-0.95				
lag_Feeunit					-0.000**	-1.99	0.000	0.34
F값	26.32***		9.14***		15.18***		13.38***	
Adj. R2	0.553		0.284		0.559		0.548	
N	677		677		359		318	

1) Table 2 provides definitions of all other variables except below.

lag_Dfee : 1 if audit fee per hour of prior year is below median, 0 otherwise:

lag_Feeunit : audit fee per hour of prior year.

2) ***, **, and * denotes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고수익모형과 저수익 모형을 성과통제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Table 5〉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¹⁷⁾

4.5.3 상호작용변수를 제외한 감사수익성과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가 수익성이 통제된 후 유의적인 추가적인 영향이 있다고

예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Table 5〉와 같이 비감사서비스는 감사품질과 유의적인 관계가 확인되었고 수익성과의 상호작용변수는 이 관계를 완화하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관계의 유의성이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유의적인 관계가 상호작용변수를 제외한 경우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추가적으로 확

17) 추가적으로 Caramanis and Lennox(2008)의 방법에 따라서 전기감사시간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예상감사시간을 추정하여 내생성 통제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Table 5〉의 결과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estimated audit per hour	Model 1 (PDA)		Model 2(DA)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NAS	0.020**	2.25	0.032**	2.03
Dfee_estimated	0.004	1.2	0.010*	1.72
NAS * Dfee_estimated	-0.026**	-2.11	-0.020	-0.95

〈Table 8〉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AQ_t = \alpha_0 + \beta_1 NAS + \beta_2 Dfee(\text{or } Dabno) + \beta_3 First + \beta_4 SIZE + \beta_5 LEV + \beta_6 OCF + \beta_7 BIG4 + \beta_8 GRW + \beta_9 ISSUE + \beta_{10} Lag_TA + YD + ID + e$$

	audit fee per hour				abnormal audit fee			
	Model 1 (PDA)		Model 2(DA)		Model 3(PDA)		Model 4(DA)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Intercept	-0.041*	-1.7	-0.124***	-2.79	-0.039	-1.58	-0.115**	-2.52
NAS	0.004	0.62	0.022*	1.78	0.004	0.58	0.021*	1.68
Dfee	0.003	1.27	0.012**	2.56				
Dabno					0.001	0.31	0.002	0.49
First	0.007	1.51	0.014*	1.81	0.006	1.49	0.014*	1.77
SIZE	0.003***	2.75	0.005***	2.99	0.002***	2.67	0.005***	2.82
LEV	-0.030***	-4.07	-0.073***	-5.32	-0.030***	-4.07	-0.073***	-5.31
OCF	-0.566***	-30.5	-0.505***	-14.7	-0.567***	-30.5	-0.508***	-14.8
BIG4	0.011***	2.88	0.017**	2.38	0.011***	2.94	0.018**	2.5
GRW	0.026***	5.03	0.034***	3.52	0.026***	5.02	0.034***	3.51
ISSUE	-0.019***	-4.28	-0.029***	-3.65	-0.018***	-4.21	-0.028***	-3.52
Lag_TA	-0.003	-0.18	-0.020	-0.64	-0.003	-0.18	-0.020	-0.64
I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 value	30.27***		8.86***		30.16***		8.59***	
Adj. R2	0.583		0.257		0.562		0.251	
N	750		750		750		750	

1) Table 2 provides definitions of all other variables.

2) ***, **, and * denotes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인하였다.

〈Table 8〉은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수익성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하여 식(1)을 변형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과통제 재량적발생액으로 감사품질을 측정하였을 때(모형1과 모형3)에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유의적인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고 수정Jones모형으로 감사품질을 측정 한 경우(모

형2와 모형4)에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Table 5〉의 결과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⁸⁾ 즉 이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는 감사수익성이 통제되는 조건적 상황에서 유의하거나 더 유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18) 통계적 유의성이 각각 5%, 1%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V. 결론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는 연구의 결과가 혼재되어 왔다. 그러나 비감사서비스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유대관계 형성의 의심과 이에 따른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로 비감사서비스의 제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규정에 반영되고 있지만 회계법인들은 지속적으로 비감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감사서비스 자체는 경제적 유착을 일으켜 감사품질과 음(-)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감사인의 본연의 수익원인 감사수익성에 따라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KOSPI 상장기업 750 연도-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감사품질은 성과통계 재량적발생액과 수정Jones모형의 재량적발생액으로, 감사수익성은 시간당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은 양(+)의 관계가 있어 비감사서비스는 감사품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수익성이 낮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와 재량적발생액과의 양(+)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여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유대 효과가 낮은 감사수익성 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추가분석을 통하여도 연구의 결과가 강건히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 제공의 효과 중 하나인 경제적 유대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하여 감사인명성과 소송위험 등을 고려한 감사인의 위험관리행태를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를 확장

하고 있다. 또한 비감사서비스가 항상 감사품을 저하시킨다는 단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도적 상황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유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선행연구들(Francis, 2006; 최종학, 2008)에 후속연구가 된다는 공헌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당감사보수는 감사인의 직급별 임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실제 수익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비정상감사보수를 또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측정오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감사수익성에 따라 감사품질 및 감사인의 위험관리행태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비감사서비스의 수익성에 따라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자료 한계로 인해 단순히 전체보수에서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을 주로 다루고 있는 한계를 갖는다.

참고문헌

- 권수영 · 기은선(2011), "발생액의 질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36(4), 95-137.
- 권수영 · 손성규 · 이은철(2004),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9(2), 249-280.
- 김명인 · 정민경 · 선우혜정(2009),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 Khan and Watts(2009) 모형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49, 173-200.
- 김정원 · 교영우(2017), "한국과 미국의 감사보수 수준 비교 연구," **회계저널**, 26(3), 219-243.
- 김지홍 · 이명진 · 유혜영(2012), "감사보수의 비대칭적 행태," **경영학연구**, 41(4), 809-836.

- 박종일 · 박정호(2013), “비정상 감사보수와 이익조정,” **세무와 회계저널**, 14(3), 73-121.
- 박종일 · 진규안 · 최종학(2003),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8(4), 141-176.
- 박종일 · 최 관(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무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0(3), 265-301.
- 배길수 · 이재은 · 노준화 · 최승욱(2015),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통한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차별적 대응,” **회계학연구**, 40(6), 81-117.
- 손성규 · 이은철 · 김성환(2010), “비감사서비스 및 계속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오류의 발생을 중심으로,” **회계와 감사연구**, 52, 27-62.
- 신용인 · 최관 · 조현우(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2), 173-207.
- 이명곤 · 장석진 · 조상민(2012),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회계와 감사연구**, 54(2), 27-62.
- 이영환 · 윤성만(2011),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이 기업의 외부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6(2), 185-219.
- 이재은 · 김경혜(2017), “시간당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대한 그룹회사 고정효과와 낮은 평균시간당감사보수 그룹회사의 감사품질,” **회계저널**, 26(3), 1-32.
- 정대길 · 송인만 · 박연희(2009), “비감사서비스의 유형과 감사인의 독립성: 현행 규정에 의한 금지 · 조건부 · 허용된 비감사서비스를 기준으로,” **회계학연구**, 34(1), 143-170.
- 최관 · 박종일 · 문혜원(2015), “비정상 낮은 감사보수가 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실증적 증거,” **회계 · 세무와감사연구**, 57(3), 1-49.
- 최관 · 박종(2009),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투입시간,” **회계와 감사연구**, 49, 313-355.
- 최승욱 · 배길수(2016), “감사인연업위험에 대한 위험프레미엄이 존재하는가? 감리지적기업을 사용한 분석,” **회계학연구**, 41(1), 1-26.
- 최승욱 · 이재은 · 배길수(2015),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감사파트너 고정효과가 존재하는가?,” **회계학연구**, 40(1), 73-116.
- 최종학(2008),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비판적검토 및 제안,” **경영연구**, 23(1), 1-46.
- 황인태 · 강성민 · 허강성(2015), “피감사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한국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Ashbaugh, H., LaFond, R. and Mayhew, B(2003),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Further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 78, 611-639.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nyam(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 1-24.
- Bell, T. B., W. R. Landsman, and D. A. Shackelford (2001),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35-43.
- Causholli, M., D. J. Chambers, and J. L. Payne (2014), “Future non-audit service fees and audit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1 (3): 681-712.
- Caramanis, C., and C. Lennox(2008),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5(1), 116-138.
- Choi, J. H., J. B. Kim, and Y. Zang(2010), “Do Abnormally High Audit Fees Impair Audit Qua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9(2), 115-140.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2), 193-225.
- Dechow, P. M., and I. D. Dichev(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 77(s-1), 35-59.
- DeFond, M. L., and K. R. Subramanyam(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1), 35-67.
- DeFond, M., K. Raghunandan and K.R. Subramanyam (2002), "Do non-audit service fees impair auditor independence? Evidence from going concern audit opin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4), 1247-1274.
- DeFond, M., and J. Zhang(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2-3) : 275-326.
- Eshleman, J. D. and P. Guo(2014), "Abnormal audit fees and audit quality: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managerial incentives in tests of earnings managemen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3(1), 117-138.
- Francis, J. R(2006), "Are auditors compromised by nonaudit services? Assessing the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3(3), 747-60.
- Frankel R. M. Johnson and K. Nelson(2002).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77(Supplement), 71-105.
- Hope, O. K., and J., Langli(2010), "Auditor independence in a private firm and low litigation risk setting," *The Accounting Review*, 85(2), 573-605.
- Jones, J. J(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2), 193-228.
- Kinney, W. R. Jr., and R. Libby(2002), "Discussion of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7(Supplement), 107-114.
- Knechel, R. W., A. Vanstraelen, and M. Zerni(2015), "Does the identity of engagement partners matter? An analysis of audit partner reporting decis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2(4), 1443-1478.
- Knechel, W., Krishnan, G., Pevzner, M., Shefchik, L., and Velury, U(2013), "Audit quality: Insights from the academic literatur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2 (1), 385-421.
- Kothari, S., A., Leone and C. Wasley(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63-197.
- Larcker, D. and S. Richardson(2004), "Fees paid to audit firms accrual choices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3), 625-658.
- Schelleman, C., and W. Knechel(2010), "Short-term accruals and the pricing and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9(1): 221-250.
- Srinidhi, B. N., and F. A. Gul(2007), "The differential effects of auditors' non-audit and audit fees on accrual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4(2), 595-629.

The Effect of Audit Engagement Profit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Joon Sun Yang* · Young Je 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focusing on audit engagement profitabilit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at could affect this relation.

Early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provides mixed evidence. However, the majority of studies also suggest that future research should take into account particular circumstances where auditor's economic bonding do dominate. We extend this stream of study b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in particular settings with more or less profitable engagement.

We use discretionary accruals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using a cross-sectional performance-controlled Jones(1991)model and cross-sectional modified-Jones model. And we choose the audit fee per hour and abnormal audit fee as proxy for audit engagement profitability,

We find that nonaudit servic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nonaudit services suggesting that nonaudit services adversely affect audit quality. We also find less profitable engagement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Our results continue to support the hypothesis for both proxies for audit engagement profitability,

Our findings provide important contribution to auditor-provided nonaudit services literature by showing that audit engagement with low profitability are less likely to allow intensified economic bonding from nonaudit services for auditor's risk-management. Our research also extends prior researches that emphasize the need to consider certain circumstances including institutional settings and incentives that influence decision making in the view that nonaudit services will always not adversely affect audit qual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ogang University, First Author

** Adjunc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o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ey words: nonaudit service, audit quality, hourly audit fees, abnormal audit fee

-
- 저자 양준선은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회계감사, 이익조정, 지배구조 등이다.
 - 저자 임영제는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대우교수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회계감사, 이익조정 등이다.